



N서울타워 '2026 글로벌 나이트 워크' 첫 회 매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오는 13일 처음 선보이는 야간 체험형 행사 '2026 글로벌 나이트 워크'가 첫 회차 티켓 전량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진행된 '2023 N서울타워 남산 나이트워크' 모습. /CJ푸드빌



마사회, 과천 포니랜드서 '탄소흡수식물 심기'
한국마사회가 탄소감축 기여활동에 나섰다.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경기 과천 포니랜드 일대에서 탄소저감 식물식재 캠페인 '심어서 감탄해'를 개최했다. 우희중 한국마사회장이 과천 포니랜드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탄소흡수식물 케나프를 심고 있다. /마사회



웅진씽크빅,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
웅진씽크빅이 경기 군포시와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본격 운영에 나선다. 8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군포시 한얼공원 내에 개관한 그림책꿈마루는 전시·체험·도서관·아카이브 기능이 결합된 그림책 기반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웅진씽크빅



삼양식품, '탱글 시리즈' 우수 미각상 쾌거
삼양식품은 '탱글 갈릭쉬림프 프로틴파스타', '탱글 바질 토마토 프로틴파스타', '탱글 갈릭오일파스타' 등 탱글 브랜드 3종과 '삼양1963'이 '2026 국제식품품질평회(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에서 '우수 미각상(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지는 탱글 브랜드 제품. /삼양식품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150주년 선박 5척 공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항 선박 공개·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19~20일 이틀간 부산항만공사 사육과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일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국립부경대, 부산해양경찰서,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평소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선박 5척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또 제19회 부산항축제에도 연계해 공동 홍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현대차, 월드컵 마케팅 시동... 180개국 축구팬 공략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캠페인
손흥민 선수·로봇 아틀라스 출격**

현대자동차가 FIFA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진행,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현대차는 FIFA 월드컵 2026을 맞아 브랜드 월드컵 캠페인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를 본격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는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달하는 후원 활동부터 대표 팬 참여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현대차는 이달 초 '미래(Next)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메인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FIFA 월드컵 2026™ 대회 공식 차량 지원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이번 영상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브랜드 비전 아래 제작됐다. 차세대 축구 유망주들의 도전과 현대차 모빌리티 혁신이 만들어갈 미래가 글로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아냈다. 또 현대차 브랜드 글로벌 앰배서더인 손흥민 선수가 성장 세대에 영감을

을 주는 레전드로 등장해 유소년 선수들에게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를 더했다. 보스턴디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함께 등장해 현대차가 제시하는 로보틱스 기술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TV와 디지털, 소셜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80

여 개국의 축구팬들에게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FIFA 월드컵 2026을 맞아 차세대 축구 인재들의 가능성과 미래 모빌리티, 로보틱스 기술이 만들어갈 다음을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브랜드 경험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 공식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1999년부터 27년간 FIFA의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십을 이어온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 994대의 승용차와 506대의 버스 등 총 1500여 대 규모의 차량 지원에 나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용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내정

(신세계그룹 회장)

이마트와 각자대표로 내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로 맡으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신세계그룹은 8일 정 회장을 신세계프라퍼티 각자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을 등기이사로 추천한 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에서 각자대표로 선임하면 최종 취임하게 된다.

이마트는 올해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했으며,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미래 성장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



다. 정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정 회장은 AG글로벌

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이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룹 핵심 사업인 유통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끌게 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청라 개발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등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정 회장은 중장기 비전과 사업 전략을 총괄하며, 신세계프라퍼티 각자대표로 내정된 이형전 전 개발본부장은 현안 사업과 조직 운영을 맡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어워즈 대상을 시상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수상자인 정호석 롯데호텔앤리조트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 /롯데

'롯데 어워즈', 롯데호텔앤리조트 대상

'APEC 정상회의' 운영 성과

롯데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6 롯데 어워즈'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를 거둔 임직원과 조직을 시상했다.

롯데 어워즈는 한 해 동안 고객가치 창출과 그룹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상은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만찬을 비롯한 주요 공식 행사의 의전과 케이터링 운영을 맡아 수행했다.

영업·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은 협업 상품을 선보인 롯데GRS, 칸쵸 브랜드 성장을 이끈 롯데월드, 친환경 플라스틱 TV 하우징 적용 성과를 낸 롯데 첨단소재가 각각 수상했다. /김서현 기자

중진공, 윤리경영으로 청렴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의 날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중진공은 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상호존중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2014년부터 기관의 청렴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매년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공직 윤리' 특강을 실시해 업무 전반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의 디지털 윤리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청렴 이케이드' 등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형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진공은 고객을 직접 대하는 현장부서의 윤리·인권 의식을 제고하



8일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맞아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기 위해 '권역별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윤리 딜레마 해소 및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청렴 북콘서트', '인권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청렴 및 인권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와 자회사 등 대내외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올해부터는 '윤리·인권경영의 날'을 매달 정례적으로 운영해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일상 속에 내재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윤리·인권 사연을 받아 해법을 나누는 '윤리·인권 팟캐스트', 현장 부서별 '청렴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빙그레,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후원

재난취약계층 9000만원 지원

빙그레는 후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9000만원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여름이불 2000개를 구

매해 재난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남양주, 충남 논산·공주·천안, 경남 김해 등 빙그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달된다. 대한적십자사는 각 지역의 재난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인사 ◆동행미디어 시대 △사회부장(부국장) 이재명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미디어산업실 콘텐츠미디어산업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원석
- ◆IM중권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임명임 ◇상무부 △WM본부장 손창우 ◇부서장 △자본시장운영부장 배민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조일연
- ◆KBS ◇부장급 △콘텐츠전략본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부장 박노원 △콘텐츠

- 초전략본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박지현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사회부장 이효연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네트워크부장 박효인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남사업지사장 조남주 △경영본부 수신료국 인천사업지사장 오종우 △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 박선자
- 통일부 △한반도평화경청단장 김효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호은